

제57대 이경자 사임당상(像) 추대식 거행

자랑스런 안동권문의 머느리



제57대 이경자 사임당상(像) 추대식이 5월 19일 오후 2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송하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장, 이일구 추사김정희선생기념사업회장, 권혁홍 대양그룹 회장, 신철수 평강신씨종친회 회장, 최광자 소비자연합회 부회장, 최정자 소비자연합회 이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최재연 문화예술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대식은 국가유산진흥원예술단의 주악 연주를 시작으로 역대 사임당 입장, 묵향회와 시문회 클럽 입장, 개회사, 축사, 예능대회 심사 소감, 특별 퍼포먼스,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의 특별공연, 사임당 및 내빈 퇴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경자 사임당은 권혁홍(추밀공파, 36세) 대양그룹 회장의 부인으로 2022년 안동권씨 대중회에서 추천하여 2023년 제55대 사임당상으로 처음 추대된 이후 이어 제56대 사임당상으로 재추대되었다. 사임당상 재추대는 사임당상 추대 역사상 이전엔 없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세 번째로 제57대 사임당상으로 추대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천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신사임당 어머니께 감사하다. 57년 동안 5만여 명의 제자를 기르고 있다. 1969년 행사를 시작하여 전쟁 후유증으로 매우 어려울 때 김활란 여사께서 나라가 잘 되려면 여성들이 똑똑해야 한다. 장한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당당하게 문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해서 처음으로 52명이 참가하여 문화행사를 치렀다. 오늘은 오전에 200여 명이 참가하여 한글, 한문, 사군자, 민화 등의 예능대회를 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초대작가와 문학가로 자라서 나라에 공헌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경제는 10위권이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살림하고 저축한 덕이다. 여성들과 어머니의 힘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남자를 능가할 만한 작가도 등장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짜증내고 난리냐. 고맙다고 생각 안 한다. 생각해보니 경제를 성장시키고 자녀들을 똑똑하게 성장시켜 세계에 내보냈으나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다. 가정교육을



잘못시켰다. 가정교육이 인(仁), 예(禮), 의(義)에 기반하여 제대로 되었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성숙한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어머니, 할머니, 이모, 고모 탓이다. 가정이 무엇이고, 조상이 무엇이고, 부모가 뭘지 알 수 있는 자녀로 가정교육을 시켰어야 한다. 도덕과 윤리에 바탕하여 이 사회가 탈바꿈해야 한다. 사람 사는 본래의 모습으로 말이다. 어떤 게 인간인가. 이거 찾는데 엄마, 할머니, 이모, 고모가 찾아야 한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 이걸 못하고 있다. 엄마, 할머니, 이모, 고모가 못하고 못된 것만 가르쳐 무조건 이기라고만 가르쳤다. 이제는 한국이 예절 바른 나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세계 엄마들이 자녀들을 한국에 보내도록 가정교육을 살릴 것을 약속하자”고 말했다.

이일구 추사김정희선생기념사업회장과 이경자 사임당은 대나무와 달을 그리는 특별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일구 회장은 대나무는 군자의 상징이다. 곧은 의지의 표상이다. 선비와 사대부들이 즐겨 그린 사군자 중의 하나이다. 훈타하고 어려운 때에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실사 하는 마음에서 세상을 달처럼 비추라는 의미로 대나무와 달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팽바닥에 펼쳐진 하얀 천에 붓으로 대나무를 힘차게 그림을 그렸다. 이경자 사임당은 검은 하늘로 떠오르는 달을 그렸다. 달은 어지러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제57대 이경자 사임당 추대식은 오후 4시에 막을 내렸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태정 김교공파종회 서울지부 회장 종묘대제 아헌관 봉행

권태정(權泰鎭, 33세) 김교공파종회 서울지부 회장이 5월 4일 종묘대제 영녕전 제향에 문종대왕(文宗大王, 1414~1452)과 현덕왕후 신위 아헌관으로 헌작했다. 종묘대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단법인 대중종약원이 주관하고 섬행단체는 현릉문화회에서 진행한다. 현덕왕후(顯德王后, 1418~1441)는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권전(權專, 부정공파)의 딸로서, 1437년 세자빈이 되었고 단종의 어머니이다.

권태정 회장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중앙일보에 입사하여 경영지원실 고객담당 이사, 고객서비스 본부장(상무), 일간스포츠 경영담당 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뉴욕중앙일보 사장 겸 발행인을 지냈다. 현재 안동권씨 종보 편집위원으로서 종보에 고사성어를 기고하고 있다. 권태정 회장은 한문대강(漢文



大綱)의 저자 애산(愛山) 권중구(權重求) 선생의 차남으로 동양 고전에 능통하고 붓글씨도 서체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빼어난 실력자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영현 미주종친회장 대중회 방문



권오돈 추밀공파종회 회장(왼쪽) 권영현 회장

권영현 미주종친회장이 대중회를 방문했다. 권 회장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안동에서 열린 2025 월드옥타(World-OKTA)세계대표자대회에 참가한 후 5월 2일 오후에 대중회를 방문했다. 이 대회에는 국내 및 동포 기업 등 2000여명의 기업인이 참가하여 기업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세계시장에서의 전략 등을 논의

했다. 권 회장은 권오돈 추밀공파회장과 권행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및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 ‘안동권씨 약사’를 책으로 출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책이 발간되면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 대학도서관 등 미국 전역의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권범준(權範竣, 좌윤공파 37세) 대중회 이사가 2025년 5월 22일 새벽 병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 권범준 이사는 경북 경주시 간천읍 간천리 64-3에서 태어나 삼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 후 20여 년 동안 군생활을 하고 소령으로 예편했다. 군 제대 후 안동권씨 대중회 홍보부장으로 근무하며 안동권씨 후손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대중회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장지는 서울 동작동 현충원이다. 가족으로는 부인 노정숙 여사와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손자 3명과 손녀 4명이 있어서 가족모임은 늘 탄탄했고 왕자지꼴했다고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권행완 편집국장

돌그림 권용택, 이향재 부부 화가 전시회 개최



그리운 노을

(권용택)



히말라야, 돌이 판넬에 붙어 있다.

(권용택)

돌에 그림을 그리는 권용택 화백이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수원 '예술공간 아름'과 '실협공간 UZ'에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답다>를 주제를 내걸고 전시회를 개최했다. 개인전이다. 전시실에는 어떤 돌은 공중에 매달려 있고, 어떤 돌은 판넬에 고정되어 있다. 백두대간의 돌이 공중에 붙어 있으니 묘하기만 하다. 여기에 도자기 도판에 그린 그림도 전시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까치 등 새와 종이비행기가 자주 등장한다. 무거운 돌이 새처럼 종이비행기처럼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어 하는

듯하다! 발상의 전환이 기발하다. 참여작가로서 현실 사회의 부조리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또 생애미술을 추구하는 작품에는 봄 여름 가을



권용택 화백

겨울 사계절이 보이고 생명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백두대간 겹겹이 굽어지는 산과 계곡, 깊은 산 속 폭포가 금방 쏟아질 듯하고, 그 속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물까마귀, 고라니, 산양, 멧돼지, 수달, 황조롱이, 물까치 등 온갖 생명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하다. 작가는 '되길 속에다 우주가 담겨 있다'는 의상스님의 화엄사상, '하늘과 땅 인간이 하나'라는 최시형 교주, '모든 생명체는 인간과 대등한 고



이향재 화백

유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태사상이 아르네 네스의 영향이 고스란히 생태미술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부인 이향재 화백 또한 남편 권용택 화백이 전시하는 동안 맞은편 '복합공간 행궁재'에서 수원에서 처음으로 기획 초대전을 열었다. 이 화백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 백석산 종적에 위치한 하오계 그림터 주변을 주로 화폭에 담았다. 이 화백은 "깊은 산 속



봄으로 스미다

(이향재)

에서 20여 년 동안 살면서 식물들을 관찰하다 보니 매일 매일이 새롭고 기분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더라. 내가 우울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의미도 없더라. 식물은 뿌리끼리 교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나 할까. 할미꽃은 똑같은 자리에 절대 씨 안 뿌린다. 흙씨로 바람에 멀리 날려버린다. 산등성이 자작나무는 1키로 미터나 날아가서 건너편 산등성이에 자리를 잡는다. 한해살이는 한 해만 살고, 두해살이는 두 해만 살더라. 자연이 정한 수명대로 2년만 살고 다 죽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곳에 또 자리 잡고 살더라. 놀랍다. 그런 자연스러움이 좋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동정

▲ 권도경 문화일보 사회부 차장이 지난 5월 8일 제24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권 차장은 식의약 규제 혁신, 식품안전 정책 등에 대한 기획 취재·보도로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차장은 국민연금 기획보도 등으로 2024년 1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권도경 차장의 부친은 권오신 좌윤공파회장이다. 권오신 회장은 포항문화방송 뉴스테크 앵커, 보도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언론상 등을 수상한 언론인이다. 할아버지는 해은(海隱) 권영도 한시인(漢詩人)이다.

▲ 권영민 산청군 단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위 원장이 지난 5월 8일 열린 '제53회 아버지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29년간 홀로되신 어머니 봉양은 물론 26년 전 지병으로 장애를 얻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등 '효' 실천에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권영민 위원장은 청년회장과 무명배짜기보존회 사무국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권응태 국제로타리3630지구 7지역 대표가 지난 3월 14일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이동협 시의회 의장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31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외식업지부 회장에 취임했다. 권회장은 취임사에서 "일반음식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정책마련과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응태 회장은 로타리클럽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불국동재향군인회 회장 등의 역할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권호준 교수가 지난 1월 24일 제8대 경기도장애인복지회장에 당선됐다. 경기도장애인복지회장은 장애인 스포츠 발전과 론볼 저변 확대를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권호준 회장은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대학원에서 체육

학박사를 취득하고, 성균관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국립경찰대학교 사회체육 외래교수, (사)대한자세보행연구원 체육분과위원장, 대한바른걷기협회장, 대한장애인론발연맹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인제해부학 등이 있다.

▲ 권이균 국립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가 5월 19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 권이균 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1997년 해양학 학사,

2000년 해양학 석사, 2005년 지구환경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 국립공주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산학협력단 CCS연구센터장,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심해가스전개발기술자문단 기술자문위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이다.

▲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이 모교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에 30억원을 기부했다. 권 회장은 지금까지 고려대학교에 기부한 금액은 지난 14년간 누적 약 251억 원에 이른다. 권 회장은 고려대학교 지질학과 78학번으로 2016년 11월 모교에 120억 원의 대규모 건립기금을 쾌척해 '메디컬 지구환경관'을 세웠으며, 2023년에는 의학발전기금으로 50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 권오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수석코치가 신임 감독에 선임됐다. 권오규 감독은 충북 청주출생으로 성남 일화, 경찰청축구단, 용인시청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은퇴 후에는 안동과학대에서 4년 동안(2014~2017) 코치로 지도자 생활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2018년 청주시티, 부천FC1995(2019~2022)를 거쳐 2023년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 시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 권정일씨가 5월 2일 심폐소생술로 동료의 생명을 구해 주민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울산 북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권정일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3시경 퇴근길에 쓰러져 있는 회사 동료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침착하게 응급조치해 동료 생명을 구한 바 있다.